

광주 고려인마을에 퍼진 연대의 물결 '감동'

병마와 싸우는 동포 돕기
SNS로 사연 빠르게 확산

5일만에 650여만원 모여
릴레이 응원·모금 '후후'

광주 고려인마을에 퍼진 따뜻한 연대의 물결이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10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생사의 기로에 선 두 고려인 동포 헤드미트리씨(50)와 최제나씨(46)를 돕기 위한 긴급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헤드미트리씨는 폭염 속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귀가하던 길에 쓰러져 현재 광주서광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출혈'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80대 노모와 단둘이 살며 생계를 책임져



광주 고려인마을이 고려인 동포를 돕기 위한 '희망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각계각층에서 후원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왔지만,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생활이 벼랑 끝에

최제나씨 역시 급성 난관염과 폐기종 등 중증

질환으로 조산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80대 노모와 함께 살며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왔지만, 병세 악화로 모든 생활이 중단된 상태다.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고려인마을 주민과 관광객 해설사, 사회 각계 인사, 그리고 과거 도움을 받았던 고려인마을 전직 수혜자들까지 한마음으로 나섰다.

또 러시아어로 번역된 사연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기부 행렬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모금운동이 시작된 지 5일만에 650여만원의 성금이 모인 가운데 병마와 싸우는 두 동포에게 전해진 '희망 릴레이'는 계속되고 있다.

후원은 고려인마을 공식 홈페이지(https://www.koreancoop.com) 또는 GBS고려방송(FM93.5MHz)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모금된 금액은 전액 환자들의 치료비와 생계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려인마을 관계자는 "마을의 전통은 서로 돕는 것이다. 낯선 조상의 땅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작은 돈이라도 보태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PEOPLE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광주기독병원 '아이스크림 데이'

광주기독병원은 최근 무더위에 지친 직원들을 위해 로비 제증역사관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아이스크림 데이'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벤트는 무더운 날씨에 환자들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준비돼 직원들은 각자 취향에 맞는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으며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승욱 광주기독병원장은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작은 이벤트이지만 잠시 더위를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길 바라며 앞으로도 직원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병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장흥군, 여성리더대학 종강식

장흥군은 최근 장흥군보훈회관에서 제9기 여성리더대학 종강식을 개최하고, 30여명의 수료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제9기 여성리더대학은 지역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리더십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난달 15일부터 총 6회에 걸쳐 운영됐다.

이번 과정에서는 AI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스피치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돼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강의는 개강식에서도 특강을 진행했던 양국진스피치의 양국진 대표가 맡아, 스피치 마무리 교육과 함께 수료생들의 리더십 여정을 응원했다.

올해 여성리더대학은 스피치 기초, 보이스트레이닝, AI를 이용한 스피치, 회의 진행 스피치, 실용 스피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들의 실무 역량과 리더십 자질을 동시에 강화했다.

군은 2017년부터 여성리더대학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기수까지 총 34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김성 군수는 "여성리더대학 참가자들은 지역 행사에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리더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홍=정명수 기자 jms05311@gwangnam.co.kr

전남도, 순천시 국제 청소년 아영대회 첫 개최

국내외 청소년 등 1200여명 참여...글로벌 교류의 장

전남도는 9~11일 순천시청소년수련원에서 국·내외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등 12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제 청소년 아영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 청소년 아영대회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야외·단체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류를 통해 파트너십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됐다.

지난해는 전남지역 학생 대상으로 청소년단체 연합 아영대회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국내·외 청소년으로 참가 대상을 확대해 국제교류의 폭을 넓혔다.

아영대회는 'Connecting your dream (하 나 된 꿈)'을 주제로 불꽃놀이, 워터밤 축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나눠 VR·AR 체험, 보



전남도는 9~11일 순천시청소년수련원에서 국·내외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등 12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제 청소년 아영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드게임 등 17개 실내 프로그램과 스포츠클리핑, 파크골프 등 8개 실외 행사로 구성,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전남만의 자연과 문화, 미식, 관광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남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전남공인회계사회, 수해 피해 성금 3500만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 회회 일동이 광주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3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 서구에 위치한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 회회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구제길 광주시장의 열매 회장과 정병민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 나눴다.

성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지역 내 신속한 복구 지원과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 임시 거주 지원 등 실질적인 회복에 사용된다.

정병민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이 피해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회계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제길 광주시장의열매 회장은 "광주전남지방



공인회계사회의 이번 성금은 회계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실천"이라며 "전달해 주신 성금은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무안군에 성금 기탁

무안군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주민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침수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직원들은 무안읍 침수주택과 상사에 대한 토사 제거 및 집안 정비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예기치 못한 폭우로 어려움을 겪은 무안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군에서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성명준 기자

광주 동구가 스마트관광 플랫폼 앱 '광주 아트패스(Artpass)' 홍보에 나섰다.

10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성수동, 인사동, 인천 송도에서 '수도권 광주 아트패스 홍보'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광주 아트패스를 비롯해 디자인비엔날레, 관광 상품, 축제축제 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들은 축제축제 캐릭터 '소덕이' 인형탈을 쓰고 광주 아트패스를 통해 식음, 숙박, 문화예술 체험 등에 대한 할인 혜택을 소개했다.

아트패스는 예술여행을 즐기는 이들을 위한 출입증(Pass)이자 길(Path)이란 뜻으로, 골목 곳곳에 숨은 예술을 찾아 광주의 문화예술 및 관광자원을 스마트 기술과 융합해 쉽고 편리한 일상 예술 여행을 제시한다.

8월3일 기준 1만2000여명이 광주 아트패스에 가입했으며, 258곳이 가맹점에 등록됐다. 동구는 지역을 대표하는 주전부리 상품 개발을



위에 이달 중 참가 업체를 모집·심사해 오는 10월 브랜드화 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아트패스는 광주 전역에 식음매장, 숙박시설, 관광 콘텐츠, 예술시설, 스마트 모빌리티 등으로 확장될 예정이다"며 "관광객이 광주에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태경 기자 sty1235@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할읍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사회화현황활동 기부은행 동봉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

232-4953.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향장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ონსე (음력 6월 18일)

- 48년생 인복이 있어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
- 60년생 구제적이야만 실패할 수 있다
- 72년생 일하지 않아 순간 당황할 수 있다
- 84년생 승진 유혹이 와도 모험에 손 내지 말라
- 96년생 극복할 줄 아는 성숙함 필요
- 51년생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것이 이롭다
- 63년생 항상 조심성 있게 일을 해 나가라
- 75년생 보는 시기에 따라 천안지지가 된다
- 87년생 충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
- 99년생 되는 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 54년생 여행 도중에 마음을 바꾸지 마라
- 66년생 대처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 78년생 아이디어가 호황을 맞게 될 것
- 90년생 시작 만큼 끝내는 것도 중요하다
- 57년생 지인과 오해가 풀려 화합을 도모한다
- 69년생 힘의 기반이 생길 것이다
- 81년생 대안을 마련하라
- 93년생 갑자기 이뤄지는 만능 오래 못 간다
- 49년생 아랫사람의 절실한 부탁이 있겠다
- 61년생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걱정이 생긴다
- 73년생 돈을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85년생 고집을 버리고 뒷사람과 대화하라
- 97년생 여자-든 걱정애 마음이 편치 않겠다
- 52년생 파문을 던지는 이가 있다
- 64년생 마음만 가지 취할 수가 없다
- 76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
- 88년생 여행 계획이었다면 가지 말라
- 55년생 돈소문이 사실로 변할 수 있다
- 67년생 유서한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다
- 79년생 배신-사기를 당하게 되니 주의하라
- 91년생 헛소문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
- 58년생 자금 융통이 쉽지 않다
- 70년생 외부 요건까지 두루 갖춰야 할 것이다
- 82년생 늘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라
- 94년생 말 싸움을 하지 말 것
- 50년생 관재수나 외과적 수술 할 수 있는 운
- 62년생 이동하면 귀인을 만날 수 있다
- 74년생 친구들이 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
- 86년생 식구가 불어날 좋은 운이라
- 98년생 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 53년생 자존심 싸움을 하지 말 것
- 65년생 부부 불화의 징조가 아니니 참이라
- 77년생 아직은 실행의 시기가 아니다
- 89년생 문서, 계약을 조심하라
- 56년생 바쁘지만 실속이 없을 것이다
- 68년생 기다리면 성공의 길이 보인다
- 80년생 관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조심하라
- 92년생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 59년생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
- 71년생 손해 보게 되니 너무 앞서 가지 말라
- 83년생 사소한 다툼으로 중대한 일을 놓친다
- 95년생 이성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 것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